광주서 전국 태권왕 가린다

내일 5·18항쟁추모 시장기 중고대회 개막

415개교 1804명 학교 명예 걸고 한판승부

전국 중·고 태권왕을 광주에서 가린다.

제12회 광주 5·18 민중항쟁추모 시장기 전국남녀중고태권도대회가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다.

대한태권도협회·광주시·5·18대회조직위원회 주최, 광주시태권도 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415개교에서 총 1804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그간 쌓은 기량을 겨룬다.

이 대회는 남중부 150개교·여중부 87개교·남고부117개교·여고부 61개교가 출전, 각 학교의 명예를 걸고 양보없는 한판 승부를 펼친다.

중등부 남녀 각 11체급, 고등부 10체급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고등부는 타격강도감지호구를 착용하며, 중등부는 일반호구를 사용한다. 또 경기는 각부별 1분30초 3회전(중간휴식 30초)으로 무승부땐 1분30초 1회전의 서든데스를 통해 승부를 가린다.

이 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항쟁했던 5·18 민주화 운동의 참뜻을 계승 발전하고자 열리고 있다. 또 이번 대회를 통해 태권도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국가대표급 유망주도 육성하고자 한다.

지난 1999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한해도 빠짐없이 개최되고 있는 이 대회는 이제까지 총 4만여명의 임원·선수가 참여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태권도 대회로 자리잡았다.

광주시태권도협회는 "5·18 정신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고자 어느 대회보다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11회 대회까지 단 한 건의 오판 및 판정항의도 없이 성공적으로 대회를 이끌어 오고 있다"면서 "또 이 대회를 통해 전국 학생들에게 광주의 훈훈한 인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지난해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제11회 광주 5·18 민중항쟁추모 시장기 전국남녀중고태권도대회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번개' 볼트 15일 한국 온다

유망주 지도 참석후 19일 대구육상대회 참가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24·자메이카)가 15일 드디어 한국땅을 밟는다.

2011 대구 세계육상조직위원회와 볼트의 후원업체인 푸마코리아에 따르면 볼트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곧바로 대구로 이동, 19일 오후 7시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릴 2010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를 준비한다.

볼트는 16일 시차 적응 차원에서 하루 쉬고 17일 대구 시민운동장에서 조직위원회가 마련한 유망주 지도 프로그램에 참석한다. 18일에는 대구스타디움 트랙을 뛰면서 적응 훈련을 치른다.

삼고초려 끝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볼트는 이번 대회에서 100m 9초대 레이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독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9초58이라는 세계신기록을 작성한 볼트는 트래비스 패짓(미국·9초89)과 마이크 로저스(미국·9초94) 등과 올해 첫 100m 레이스를 통해 기록을 서서히 끌어올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가 끝난 뒤 23일 상하이, 내달 12일 뉴욕, 7월16일 파리, 8월27일 브뤼셀 등 국제육상경기연맹이 주관하는 굵직한 다이아몬드리그 대회가 기다리고 있어 첫 레이스부터 세계기록에 근접하는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대구국제육상대회에서는 28세 동갑내기 라이벌 타이슨 게이(미국)와 아사파 파월(자메이카)이 세기의 레이스를 벌였고 게이가 9초94를 찍고 우승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21년 만에 한국에서 100m 9초 기록이 쓰였지만 세계선수권대회 직후였고 시즌 막판이어서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졌던 터라 진정한 '총알 대결'에는 못 미쳤다.

그러나 올해는 볼트라는 슈퍼스타가 나서고 본격적인 육상 대회를 준비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역대 대회 최고기록이 탄생할 것으로 점쳐진다. /연합뉴스

'뒤로 뛴 마라톤' 6시간50분에 완주

獨 40대 아마추어 마라토너

독일 출신의 40대 아마추어 마라토너가 마라톤 풀코스(42.195㎞)를 뒤로 달려서 6시간50분에 완주했다고 독일 dpa 통신이 10일(한국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남서부 칸데른 출신으로 체코 프라하에 사는 기술자인 랄프 클루크(46)는 지난 9일 열린 프라하마라톤에서 뒤로 달리기로 6시간50분에 골인했다.

지난 달부터 뒤로 달리는 연습을 했다는 클루크는 완주에 성공함으로써 체코의 한 보육시설에 6218달러(717만원)의 후원금도 지원했다.

클루크는 "종아리가 아픈 것 외에는 괜찮다"라고 말했다.

뒤로 달린 마라톤에서 역대 최고기록은 2004년 중국 베이징에서 쉬천준이라는 마라토너가 세운 3시간43분39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산악계 전설도 '오은선 14좌 완등 인정'

'8000m급 14좌 최초 완등' 메스너

산악계의 살아 있는 전설 라인홀트 메스너(이탈리아·오른쪽)가 오은선(44·블랙야크) 대장의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을 인정하고 축하했다.

1986년 세계 최초로 14좌 완등에 성공한 메스너는 지난 8일 네팔 카트만두의 한 호텔에서 오 대장과 한 시간가량 만난 뒤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14좌에 모두 오른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고 오 대장 소속사인 블랙야크가 10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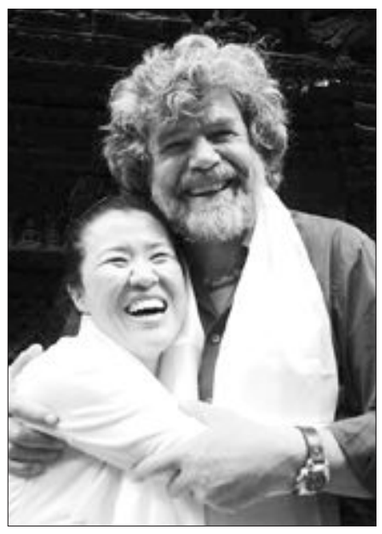
메스너는 오 대장에게 최근 의혹이 제기된 칸첸중가 등정에 관해 질문한 뒤 "등반 과정에 문제 될 것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메스너는 또 9일 카트만두에서 열린 환경 심포지엄에서도 오 대장의 14좌 완등을 높이 평가했다.

오 대장이 참석한 이 심포지엄 연사로 나선 메스너는 "남자들도 짧은 기간에 등반하기 어려운데 오은선은 남자보다 더 위대한 여성"이라고 칭찬했다.

오 대장은 심포지엄 뒤 지난달 14좌의 마지막인 안나푸르나에 오를 때 사용한 자신의 피켈(등산용 지팡이)을 메스너에게 건넸고 메스너는 이 장비를 이탈리아에 있는 자신의 박물관에 전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메스너는 1986년 로체에 오르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14좌 완등에 성공한 세계적 산악인이다. /연합뉴스



조선대 박영식 해머던지기 金

조선대 박영식이 제39회 전국종별육상경기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박영식은 10일 경남 창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남대부 해머던지기에서 64m55를 던져 채운필(공주대·59m53)을 제치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남자일반부 400m 결승에서는 최명준(광주시청)이 47초03을 기록, 박봉고(구미시청·46초25)에 이어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씨름 단체전 최강 가린다

'한씨름큰마당' 14일 출범

씨름 단체전의 최강을 가리는 리그전 '한씨름큰마당'이 출범한다.

대한씨름협회는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개막전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각 지역을 돌아가며 팀별 돌려붙기 방식으로 12개 대회를 열고 왕중왕전에서 우승팀을 가리는 리그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각 지역을 연고로 한 18개팀이 참가하는 이 대회는 팀당 35경기씩 12개 대회를 치르고 상위 4팀이 왕중왕전에 진출, 우승팀을 결정한다. /연합뉴스

'펭귄맨' 클라크 생애 첫 우승샷

PGA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황제' 우즈는 목 부상 기권

'펭귄맨' 팀 클라크(남아공)가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기권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우승을 차지했다.

세계랭킹 40위에 불과한 클라크는 10일(한국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비치 소그래스TPC 스타디움코스(파72·7천215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의 맹타를 휘둘러 합계 16언더파 272타로 역전 우승을 거뒀다.

우즈는 6번홀을 마치고 7번홀에서 티샷을 한 뒤 목 통증을 이유로 기권, 다시 한번 시련의 시기를 맞게 됐다. 우즈는 "마스터스 대회 전부터 통증이 있었지만 오늘은 더는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말한 뒤 대회장을 떠났다.

우즈가 경기 도중 기권한 것는 아주 드문 일이다. 우즈는 다음 주 MRI 검사를 받을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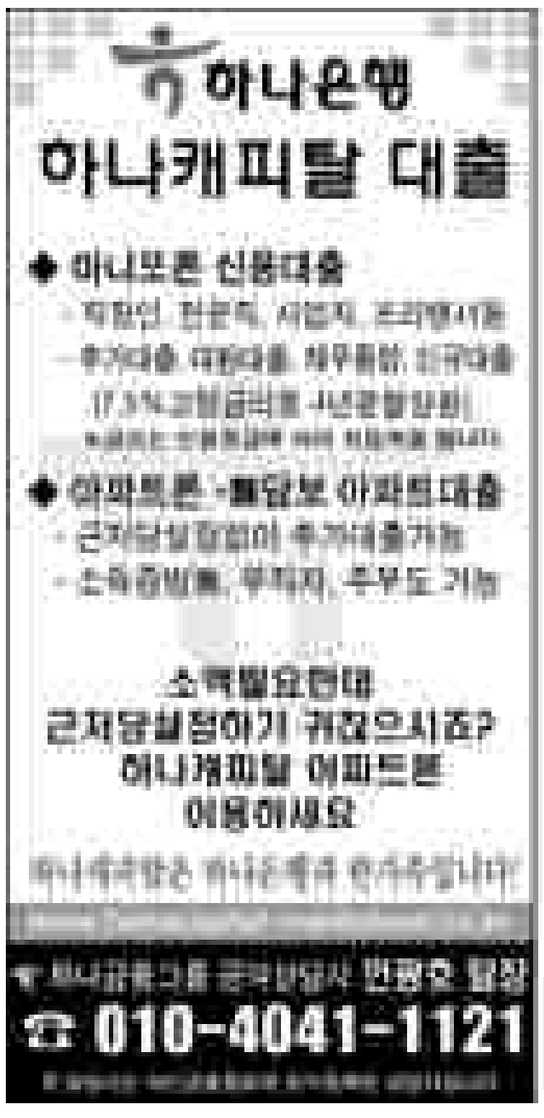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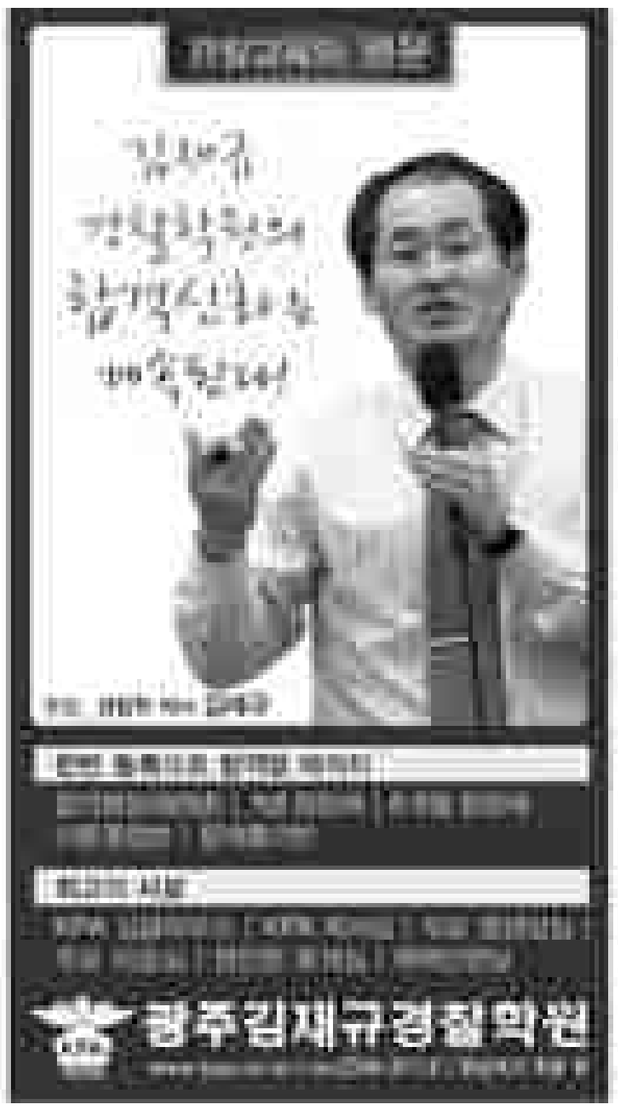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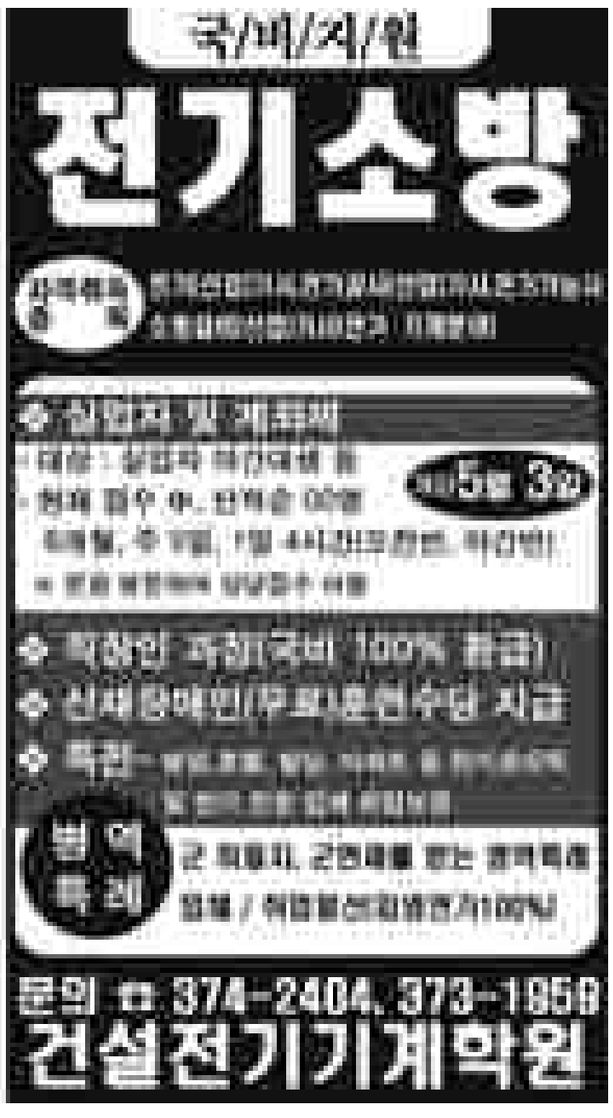
불뚝한 배와 뒤뚱뒤뚱 걷는 모습 때문에 '펭귄'이라는 별명을 얻은 클라크는 생애 첫 PGA 투어 우승을 제5의 메이저대회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차지하는 기쁨을 누리며 상금 171만달러(19억4000여만원)도 받았다.

상위권 진입을 노렸던 최경주(40)는 4타를 잃고 공동 34위(3언더파 285타)로 밀려났고 양용은(38)도 2오버파 74타를 치는 바람에 최경주와 함께 공동 34위가 됐다. /연합뉴스

"휴식이 필요해~"

장미란 전국대회 불참

한국 역도의 간판 장미란(27·고양시청)이 컨디션 난조 탓에 시즌을 개막하는 국내 최고의 권위 있는 대회에 출전하지 않기로 했다.

장미란은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13일 원주에서 열리는 전국여자선수권대회를 거르기로 했다고 대한역도연맹이 10일 밝혔다.

장미란은 주니어 시절인 2000년부터 줄곧 국가대표로 활동하면서 심한 피로 누적에 시달리고 있어 육체적, 심리적 영향을 고려해 출전을 자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